

매체환경의 음란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일까. 서울대 학교일까. 서울대는 학생수가 2만 여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렵다. 방송통신대학은 어떨까. 방송대는 학생수가 수만명을 헤아린다. 그러나 이곳도 경쟁상태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는 다름아니라 텔레비전이다. 매일 저녁 거기에 눈과 귀를 모으는 사람만도 수백 만명을 헤아린다.

한마디로 우리의 매체환경은 거의 황폐화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해서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생명과 자연현상을 가져오고,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 종자를 낳게 되는 것을 보아왔다. 대중매체라는 사회환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매체환경이 오염되면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는 다름아니라 TV 스타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태는 그들 TV스타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텔레비전과 TV스타들이 '가르침받고 본받을'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늘 날엔 오히려 경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TV화면에서 인간은 안보이고 물 이미 오래 되었거니와 최근 들어서는 보통사람의 진솔한 모습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에 제대로 검증도 안된 연예인들이 우물러나 놀이판을 벌이는 한심스런 풍토가 되고 있다. 물론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성과 폭력의 상품화이다.

TV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지도가 필요치 않고, 또한 절대로 수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 이 말은 종래의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던 지식, 즉 성인의 삶과 관련된 '비밀'이 더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가령 말로 할 때는 어린이가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거나 어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TV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TV에서 상품화된 성과 폭력이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거침없이 다가갈까 봐다.

비단 TV만이 아니다. 비디오는 음란·폭력성의 상품화에 선봉장이 된지 이미 오래지만 TV의 영향을 받아, 또 TV와 견주어 신문 잡지등 인쇄매체도 그러한 방향으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는 누구일까. 서울대 교수들일까. 혹은 '스승의 날' 표창을 받은 선생님들일까. 혹은 일류 학원의 강사들일까. 모두 거리가 멀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는 다름아니라 TV 스타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태는 그들 TV스타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텔레비전과 TV스타들이 '가르침받고 본받을'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늘 날엔 오히려 경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TV화면에서 인간은 안보이고 물 이미 오래 되었거니와 최근 들어서는 보통사람의 진솔한 모습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에 제대로 검증도 안된 연예인들이 우물러나 놀이판을 벌이는 한심스런 풍토가 되고 있다. 물론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성과 폭력의 상품화이다.

TV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지도가 필요치 않고, 또한 절대로 수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 이 말은 종래의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던 지식, 즉 성인의 삶과 관련된 '비밀'이 더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가령 말로 할 때는 어린이가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거나 어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TV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TV에서 상품화된 성과 폭력이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거침없이 다가갈까 봐다.



정달영 (비른연진사민모임 사무총장)

또한 주목할 것은 그것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를 알고 어른들이 흥분하는데 대해 정작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또래 집단까지 태연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여중생은 이른바 '빨간 마후라' 사건에 대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그 애들이 한 일을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이 이미 상당히 황폐되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아닐 수 없다.

과보가 나타나기전에

법규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도 그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 끝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악의 과보가 눈앞에 다달으면 그때야 비로소 괴로워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시행하며 청소년 유해매체 단속을 하고 있다. 스포츠 신문들을 기소한 검찰도 이번만은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부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물론이다. 악의 과보가 눈앞에 다다른 후 괴로워하지 않도록 음란·폭력적 매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결코 훼손돼선 안된다”

감사원, 그린벨트 특감

국토 54% 차지...선거때면 해제공약 주민 '재산권 침해 불만' 해소책 세워야

감사원이 그린벨트 특감에 나섰다.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행정누수로 인해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토지관련 불법·부실시행행위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15개 시·군·구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 국토의 5.4%인 16억3천만평, 71년 서울의 무질서한 평면확산을 막고 각종 공해로부터 수도권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린벨트 제도가 시행됐다. 그후 77년까지 70개 시·군 14개 권역으로 확장됐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출근공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이 저지됐고 도시주변 자연

경이 효과적으로 보전될 수 있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다. 이와는 달리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주민불만이 뒤따라다보니 선거 때면 그린벨트 완화가 각 정당·후보들의 주요공약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그린벨트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최근 그린벨트 재검토를 선거공약으로 내놨다. 그린벨트 내의 96만5천여명의 표를 의연할 수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는지 하다. 정치권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국토관리 정책을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또하나의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주민생활과 무관한 무허가 자동차운전교습소, 호화주택, 호화음식점, 쓰레기매립장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고 있다. 일부 부유층과 인·허가관련 공무원의 우착이 없으려는 불가능

한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는 시의적절하다. 공직비리 적발과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돼야 한다.

정성운 기자

사람과 자연 돌아닌 하나

분당 기원정사 주지 법경스님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그린벨트 지역의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다.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전책이 강구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의 불법훼손과 해당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린벨트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는 유효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전 곳곳에서는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몸을 정보(正報)라 하고,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산하대지를 의보(依報)라 하는데,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정불이(依正不二)이다." (불설아미타경)

공해정치인 추방운동 시민단체들 나섰다

경실련 참여민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월 25일 대선을 앞두고 저질발언과 근거없는 설을 퍼뜨리는 정치인 감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해당 정치인 및 정당에 항의전화 및 팩스보내기, PC통신망에 비난의 글 올리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혹독선전으로 대선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저질발언을 평가해 성명서 등의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위성교육방송 시작 사교육비 부담 줄듯

위성교육방송이 8월 25일부터 시작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실시 첫날 일부 학교에서는 위성교육방송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강의 내용이 어렵다며 위성교육방송 교재를 가르치는 새로운 과외를 찾아가고 있다. 일반과외를 흡수한다는 애초의 목표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낮춰 학생 부담을 덜고, 대학입시의 입학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과외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은 국내인사들의 영문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이 리스트를 근거로 신원확인에 나서서 한편 도박혐의 보은하는 것이 인사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검거에 나섰다. '로라희 리스트'에는 세계순위 30위 안의 모교회장과 전교회의원, 언론사 간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권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인 불우인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자들에게 연구비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장애복지관 건립 주민반대

주민들의 반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가 표류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해 6월 산본동 1156번지 일대 수리산 아래에 35억원을 들여 2천7백여㎡ 규모의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직업적응훈련실 등을 갖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산본신도시 1천3백여가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군포시와 시의회에 잠소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대에 나섰다.

군포지역 거주 1천6백여명의 장애인들은 정에도 서러운데 주민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웃이 될 수 없는 각박한 세태를 아쉬워하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21억 쾌척

"사립이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하는 한 지역이 보은하는 것이 인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웃을 배려하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남주동에 사는 권태성씨(76)가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평생 합쳐 모은 현금 6억원과 부동산 등 21억원을 쾌척했다. 권씨는 자신의 야호를 탄 간송(淵松)문화재단을 설립기로 하고 최근 충북도교육청에 제안서립 신청서를 냈다. 재단설립 후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을 적절히 병행한다는 게 권씨의 구상이다. 가

정신인 돌보는 장애인 침술봉사



◇한국명인의료연구회-시력을 상실한 뒤 실의를 당고 일어나 오하러 정신인들을 돌보는 장애인 모임이다. 시각장애인인 강성령씨(47·서울신반포동) 등 5명은 중계동 둔촌동 광명시 대치동 등 먼곳에서 달려와 매주 목요일 오후1시10분 되면 마장동 동사무소 3층으로 나온다. 40여명의 주민들이 이들의 손길을 기다린다. 무료로 침을 놔주고 지압과 안마를 해준다.

식품진열대 온도관리 허술

대형식품매장을 설치한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 진열대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고 있어 식품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이 최근 서울을 비롯한 10개도시 1백65개 판매업소에 설치된 냉장·냉동진열대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온도관리를 허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공전에는 냉장진열대는 0~4도, 냉동진열대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업소의 냉장진열대의 평균온도는 9.3도, 냉동진열대는 영하 7.2도로 법정온도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대형백화점의 냉장진열대는 0.7%만이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다. 냉장·냉동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여시아나균 등 세균들이 증식해 식품의 부패를 유발, 식품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한의학협 해외 의술봉사

대한한의학협회는 산하 해외의료봉사단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과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사할린 연변 등지에서 매년 두세차례씩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올해에도 해외봉사단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연변과 타지키스탄에서 1만2천여명에게 의술을 베풀었다. 이달 12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10일간 무료진료활동을 벌인다.

도박리스트 1백여명 수사

서울지검 의사부는 8월 22일 미국 머라지호텔 한국인고객 담당자인 로라희(42)씨로부터 입수한 도박이수금 장부와 전화번호부 등 2권에 1백여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블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블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블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블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인다. 또 한방병원 건립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블로화정을 그동안 비매출로 사 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가격 : 정가 50만원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 김 참 수)

如來健康院 合掌
電話 : (053)655-2227

범보신론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블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블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블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으로 뽑아내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장장 김운선)은 4일 '참기름과 부산물인 깻묵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큰 천연물질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추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노화방지제와 암예방약품, 피부노화억제제 화장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지 개발된 천연물질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로 평가돼온 '알라틴 코페롤'보다도 산화억제능력이 15~20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류수호 박사는 이 세사미놀성분으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있는 음료와 알약 등의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으며, 내년 중에는 특허공매를 통한 산업화가 이뤄져 오는 98년말쯤 관련제품의 시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2월 3일 **식품뉴스**

시연스님도 국내 최초 특허를 받았다. 감식초 시장은 마약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다. 지난 1996년 12월 12일 시연스님이 특허받은 블로화정 성분은 마약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이익을 낳는다.

감식초음료 급성장세